

과테말라 선교 편지 2022년 12월의 마지막 날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찌니라, 아멘,
눅 17:9-10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이름의 지난 16년간의 세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내디딘 발걸음,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보내온 선교의 시작과 출발, 그렇게 보낸 16년의 세월이 마치 찰나와 같은 순간 인 듯 흘러가 버린 2022년 12월의 끝자락 마지막 날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다시 돌아봅니다. 혼자만 겪는 상황이 아니지만 계속되는 펜데믹 사태 가운데서 사방이 막힌 것 같아 멈추어야 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답답함이 컸었던 시간에도 돌아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뜻밖의 일들로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사의 재료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모로 함께 동행해준 한국과 미국에 있는 나의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께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략한 보고를 드립니다.

2022년 PGM 전문인 선교사 Conference (10/5~12일)

4년 마다 열리는 PGM 선교 대회가 ‘중단 없는 선교’라는 케치 프레이즈로 10월 5일~7일 까지 3일간 NC의 그린스보로에서, (여기에 저는 참석치 못했음) 10월 8일 ~ 12일까지는 Phila Antioch 교회 중심으로 열린 선교 대회에 참석함으로 그동안 제한 받고 늘렸든 환경에서 조금은 풀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번 코로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찍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도 계신 안타까움도 보았고, 또 이번 대회에 여러 어려움으로 참석치 못한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참석한 선교사님들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는 저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다시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하면서, 마지막 날 호수 같은 잔잔한 바닷가에서 어린 아이들 같이 옥수수, 고구마, 머쉬멜로를 구워 먹기도 하고, 분에 넘치는 섬김도 받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새 내일을 알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보니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갑작스럽고 혼란한 사태로 겪는 어려움이 없이 바톤을 잘 넘기며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소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면적 전방위 사역 (‘익투스 교회’와 ‘NGO Buena Semilla -Good Seed’)에서 한 발 후방

으로 물러나고 모든 지휘권(?)과 결정권 그리고 법적 서류 등을 자격을 충분히 갖춘 아들 같은 현자인 동역자 Luis Rosales에게 넘기고 저는 뒤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미국과 한국 교회의 전적 선교 후원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전히 재정적 독립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있어서 쉐라 지역의 선교를 계속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Luis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도 열심히 준비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계속 재정적 후원을 간절함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3년 동안만이라도 ...)

반세기의 세월을 다시 돌아보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대학을 졸업하고 스웨덴 아동 구호 재단과 미국 적십자에서 16년간 사회생활을 했고, 그리고 신학을 마친 뒤에는 성동교회, 부민교회 등에서 16년을 섬겼고, 마지막 섬기든 부민교회에서 2015년 12월에 정년퇴직을 하고는 이어 벤쿠버에서 YM의 목회자 선교사를 위한 6개월 PDTS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서 16년을 섬기게 되는 총 48년의 세월 곧 반세기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들을 정리하는 마음에서 간단한 12월의 보고를 드립니다. ^-^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기 선교를 협력하는 일과 선교 보고도 (자주 드리지는 못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염려 마세요.)

2023년의 성탄절 행사

2019년 12월 성탄절을 마지막으로 3년을 방학했다가 2023년에 다시 성탄절 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성탄절 행사



그리고 3년을 훌쩍 뛰어넘어 2023년엔 가족 사진도 찍고 선물도 받아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거의 3년동안 매월 실시하였던 긴급 구호 사역은 이제 이번 12월로 끝내고 2023년 1월부터 다시 이전의 익투스 무료 탁아소 (내년부터는 명칭을 조금 바꾸어 그냥 익투스 어린이집으로 부르기로 했음)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아래 사진은 앞으로 함께 할 봉사자들의 모습입니다.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지난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신다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 Feliz Año Nuevo (Happy New Year) en Cristo !

2022년 12월 31일

과테말라 쉐라에서,
동역자 강순진 드림